

Korea / Global Market
26 April 2013

Global Focus

미국시장, 지표와 실적 호조에 하루 만에 반등

1. 미국시장, 지표와 실적 호조에 하루 만에 반등 (Bloomberg 2013. 4. 25)

- 미국시장, 실업수당 청구건수 감소와 기업실적 호조에 상승
- 다만, 장 막판 독일 중앙은행이 OMT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은 제한
- 노동부 발표, 4월 3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1.6만건 줄어듦 33.9만건 기록, 예상치 35만건 하회
- 다우케미칼, 1분기 순이익 주당 69센트를 기록, 전망치 61센트 상회
- 엑손모빌, 1분기 순이익 주당 2.12달러를 기록, 전망치 2.04달러 상회
- 코노코필립스, 1분기 순이익 주당 1.42달러를 기록, 전망치 부합

2. BOA, 연준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 전망 (WSJ 2013. 4. 25)

- BOA, 정부의 긴축으로 인해 경제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, 경제지표의 부진이 연준의 양적완화 기조를 약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
- 또한, 경기회복세 둔화 시 연준이 무제한 자산매입을 실행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연준이 지속적으로 양적완화 프로그램에 유연하게 접근해온 점을 설명
- 이에 따라,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연준이 국채 매입 규모를 4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

3. 분데스뱅크, ECB의 OMT 프로그램 반대의사 표명 (MarketWatch 2013. 4. 25)

-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, ECB에 OMT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문건을 송부
- ECB의 OMT 프로그램은 중앙은행들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, 이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채가격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
- 또한, ECB가 도입한 OMT는 좋지 않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때문에 OMT를 지지할 수 없으며 이는 ECB의 리스크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

이재훈, Analyst
3774 1375
jaehun.lee@miraesec.com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미래에셋증권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미래에셋증권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작성자: 이재훈